



기혼여성의 지속적 피임행위와 의사소통, 피임통제감 및 성적자율성

김 미 종¹⁾, 강 희 선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피임지식의 보급과 피임이용 확산은 여성들의 임신, 출산 등의 재생산 활동을 통제하여 생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피임행위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피임은 1960년대 초반에 국가적인 정책으로 인구성장 억제를 위하여 시작되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인공유산 경험율도 높은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Cho et al., 1997; Kim, 1992; Kim, 2001; Yoo et al., 1999), 피임실천의 질적인 측면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피임관련 연구들은 주로 피임의 실태나 피임의 의학적 효과를 검증하는 기초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Cho et al., 1997; Kim et al., 1987; Kong et al., 1992), 점차로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과 피임 경험을 통해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자율성을 조망하거나(Chang, 1998; Cho, 1996), 현상학적 방법으로 부부의 피임경험을 탐색하거나(Cho & Lee, 1997; Cho, 1998),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피임 경험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연구(Park, 1997), 피임교육 후 기혼여성에게 피임효과를 본 연구(Kim, 1997; Kim & Paek, 1998)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과 이에 대한 권리 의식을 갖는 것은 피임증진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적자율성과 피임통제감

은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임과 성관계가 결코 여성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므로 부부의 관계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피임은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매 성교 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부간 의사소통(Cho, 1998; Swanson, 1988) 및 피임통제감, 성적자율성이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지속적으로 피임행위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보다 질적인 측면의 피임관련 교육과 상담 및 간호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지속적 피임행위 여부에 따라 의사소통, 피임통제감, 성적자율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속적 피임행위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군간에 부부간 의사소통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지속적 피임행위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군간에 성관련 의사소통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지속적 피임행위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군간에 일반적 의사소통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주요어 : 의사소통, 지각된 피임통제감, 성적 자율성, 피임

1)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2) 서울여자간호대학

투고일: 2003년 2월 7일 심사완료일: 2003년 7월 5일

- 지속적 피임행위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군간에 피임통제감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지속적 피임행위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군간에 성적자율성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용어정의

○ 부부간 의사소통

부부간 의사소통은 부부간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상호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대화의 효율성, 만족감 양상을 말하며(United Nations Dept. of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977),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을 성관련 의사소통과 일상적 의사소통의 두 가지 차원으로 측정한다.

• 성관련 의사소통

성관련 의사소통은 성생활과 피임에 관한 의사소통을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작성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일반적 의사소통

일반적 의사소통은 부부가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피임통제감

통제감이란 관심행위의 수행에 대한 쉽거나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 지각 즉, 개인이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각하는 난이성의 정도(Ajzen, 1991)를 말하며,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개인 스스로의 확신을 의미한다(Bandura & Adams, 1977). 따라서 피임통제감이란 피임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개인 스스로의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Kim, 1997).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성적자율성

성적자율성은 자기결정과 책임을 갖는 것,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갖는 것, 성적·생식적 행동을 조절할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하며(Kim, 1999) 자신의 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성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특히 여성이 성적 욕구 표현 및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성이나 생식건강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타고나거나 훈련된 인성적 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제작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지속적 피임행위

지속적 피임행위란 대상자 부부가 지난 6개월 동안 매 성교시 피임행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는지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을 자주 지속적으로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피임 지속성 정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횡단적 서술적 비교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한국의 기혼여성을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20-49세 기혼여성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다음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임의표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20세-49세의 기혼여성
- 폐경 되지 않은 자
- 본인이나 배우자가 영구피임을 하지 않은 자
- 현재 자궁내 장치(IUD)를 하지 않은 자
-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자
- 현재 임신, 산욕기에 해당하지 않은 자 그리고 임신을 계획하지 않은 자이다.

연구도구

측정하고자 하는 각 변수에 대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 부부간 의사소통

• 성관련 의사소통

성관련 의사소통 도구는 문헌고찰과 면접을 통한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통해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우리부부는 피임에 관해서 대화한다'. '우리부부는 성관계에 대한 느낌에 관해 대화한다.'를 포함한 총 6문항 5점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점수범위는 6점

에서 30점이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 일상적 의사소통

부부간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본 도구는 Chae et al.(1998)에 의해 번역된 미네소타 부부 대화 진단(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Inventory) 도구와 Hong (1994)이 번역한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MCI)의 일부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우리 부부는 서로의 말을 경청한다.', '배우자와 둘이서만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다.'를 포함한 총 14문항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점수범위는 14점에서 70점이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 성적자율성

성적 자율성 도구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피임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 결과 내 몸에 영향을 미치므로, 책임감 있게 내 몸을 간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를 포함한 총 6문항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가 최초 개발 시 7문항의 도구였으나 이론적 타당성과 전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도구의 총점은 6점에서 30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0이었다.

● 피임통제감

피임통제감의 측정도구는 Nam(1994)과 Ji(1993)의 모유수유와 금연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도구를 참고로 본 연구 주제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우리부부는 피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참을 수 있다.', '우리 부부는 피곤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피임을 할 것이다'를 포함한 총 7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었으며, 7점에서 35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 피임사용 지속성

부부가 지난 6개월 동안 전체 성관계 중에서 피임행위를 했던 정도를 측정하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귀하가 지난 6개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성관계 중에서 피임을 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라고 질문하여 '성관계시 언제나 피임하였다.', '반이상 피임하였다.', '반정도 피임했다.', '반이하로 피임했다.', '전혀 피임하지 않았다.'로 응답하도록 한 후 '성관계시 언제나 피임하였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지속적 피임행위군으로, 그외 응답자는 비지속적 피임행위군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였으며,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을 유지하였다. 응답자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기명 처리를 하였고,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수거하도록 하여 응답 기피를 최소화하였다. 서울시,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소재 5개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들의 협조를 얻어 간호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모나 언니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하고 응답 후 회수하도록 하였고, 대전시에 위치한 1곳의 어린이집과 1곳의 유치원에서 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연구에 협조문을 포함한 설문지를 보내어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의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여 이해시킨 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후 응답자에게는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피임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주었으며, 사례로 작은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320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기재된 77부를 제외한 243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제 변수의 실수, 백분율, 평균 등 서술적 분석은 SPSS PC 10.0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 피임지속성 여부에 따른 그룹간 차이를 χ^2 -test 또는 t-test 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속적 피임행위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군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43명으로 비지속적 피임행위군이 142명, 지속적 피임행위군이 101명이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의 분포와 동질성 검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비지속적 피임행위군과 지속적 피임행위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비지속적 피임행위군의 평균 연령은 35.2세 (± 5.8)였고, 결혼기간이 평균 9.4년(± 6.6) 이었으며, 대학졸업자가 79명(55.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직업상태를 보

<Table 1> Characteristics of consistent contraceptors and inconsistent contraceptors (n=243)

Variables	Inconsistent contraceptors (n=142)		Consistent contraceptors (n=101)		X ² or t	p	
	n(%)	mean±SD	n(%)	mean±SD			
Age(yr)	<30	21(14.8)	35.2±5.8	8(7.9)	34.9±4.3	.47	.64
	30-34	54(38.0)		46(45.5)			
	35-39	34(23.9)		33(32.7)			
	≥40	33(23.3)		14(13.9)			
Period of Marriage(yr)	<5	32(22.5)	9.4±6.6	16(15.8)	8.83±4.4	.74	.46
	5-9	56(39.4)		45(44.6)			
	10-14	25(17.6)		28(27.7)			
	≥15	29(20.3)		12(11.9)			
Education	up to high school	48(33.8)		19(18.9)		6.9	.03*
	college	79(55.6)		71(70.3)			
	above college	15(10.6)		11(10.9)			
Job	yes	86(60.6)		58(57.4)		.35	.84
	no	47(33.1)		35(34.7)			
	part-time	9(6.3)		8(7.9)			
No. of children	0	6(4.2)		1(1.0)		-1.58	.11
	1	41(28.9)		20(19.8)			
	2	80(56.3)		70(69.3)			
	≥ 3	15(10.6)		10(9.9)			
Experience of unplanned pregnancy	no	58(40.8)		44(43.6)		.18	1.00
	yes	84(59.2)		57(56.4)			
Experience of artificial abortion	no	85(59.9)		63(62.4)		.16	.79
	yes	57(40.1)		38(37.6)			

* p <.05

면, 전업주부가 47명(33.1%)이었고 직장이 있는 여성은 86명(60.6%) 이었다. 지속적 피임행위군의 평균 연령은 34.9세(±4.3)였고, 결혼기간이 평균 8.83년(±4.4)이었으며, 대학졸업자가 71명(70.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전업주부가 35명(34.7%)이었고 직장이 있는 여성은 58명(57.4%) 이었다. 두 군간의 동질성 여부를 보면 학력($\chi^2=6.9$, $p=.03$)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 결혼기간, 직업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지속적 피임행위군과 지속적 피임행위군의 산과적 특성을 살펴보면, 비지속적 피임행위군(56.3%)과 지속적 피임행위군(69.3%) 모두에서 자녀의 수는 2명이 가장 많았다. 비지속적

피임행위군 중에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한 여성은 84명(59.2%)이었고, 이는 지속적 피임행위군에서의 57명(56.4%)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인공유산을 경험한 경우도 비지속적 피임행위군에서 57명(40.1%)으로 지속적 피임행위군에서의 38명(37.6%)보다 높았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속적 피임행위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군의 의사소통, 피임통제감, 성적자율성의 차이

지속적 피임행위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군 사이에 의사소통

<Table 2> Comparison of sexual communication, general communication, perceived control of contraception, sexual autonomy between the inconsistent contraceptors and consistent contraceptors (n=243)

Variables	Inconsistent contraceptors (n=142)		Consistent contraceptors (n=101)		t	p
	mean±SD	mean±SD	mean±SD	mean±SD		
Sexual communication	20.3±5.1		21.9±4.6		-2.5	.01*
General communication	50.5±8.3		51.6±7.4		-1.0	.31
Perceived control of contraceptive	26.4±5.8		31.0±3.8		-7.5	.00**
Sexual autonomy	23.5±3.6		24.8±2.8		-3.1	.00**

*p <.05 , **P < .00

(성관련 의사소통 및 일반적 의사소통), 피임통제감, 성적자율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지속적 피임행위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군의 성관련 의사소통 점수는 가능점수의 범위 4점에서 30점 중에서 비지속적 피임행위군의 점수(20.3±5.1)보다 지속적 피임행위군의 점수(21.9±4.6)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5, p=.01$). 일반적 의사소통 점수는 가능점수의 범위 14점에서 70점 중에서 비지속적 피임행위군의 점수(50.5±8.3)보다 지속적 피임행위군의 점수(51.6±7.4)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0, p=.31$).

대상자들의 피임통제감의 점수는 가능점수의 범위 7점에서 35점 중에서 비지속적 피임행위군의 점수(26.4±5.8)보다 지속적 피임행위군의 점수(31.0±3.8)가 유의하게 높았다($t=-7.5, p=.00$). 성적자율성 점수는 가능점수의 범위 6점~30점 중에서 비지속적 피임행위군의 점수(23.5±3.6)보다 지속적 피임행위군 점수(24.8±2.8)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1, p=.00$).

일반적 특성 중 학력이 지속적 피임행위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였으므로, 이를 통제하고 공분산 분석을 한 결과, 성관련 의사소통($p=.02$), 피임통제감($p=.00$), 성적자율성($p=.01$)이 역시 지속적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피임행위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군 사이에 부부간 의사소통, 성적자율성 그리고 피임통제감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피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여성은 전체의 41.6%에 불과하였다. 가임기에 일상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피임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임신의 위험성을 가지며 이는 여성건강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Kim et al.(2000)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피임실패는 79.3%로 높은 편이나, 가임 여성의 39%가 인공 임신중절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통해볼 때 단지 피임실천여부에 대한 수량적인 파악에 그치지보다는 지속적으로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파악을 통해 이를 강화해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지속적 피임행위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군간에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6.9, p=.03$). 학력을 통제하여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성관련 의사소통($p=.02$), 피임통제감($p=.00$), 성적 자율성

($p=.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속적 피임행위 군의 성적자율성 정도(24.5±3.6점)는 비지속적 피임행위군(23.5±3.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vinson(1986)의 연구에서 빈번하게 무방비 성교를 하는 것은 임신예방에 대한 자기 주장성과 부적 상관관계($r=-.15, p<.05$)가 있으며, 피임사용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것과 부적 상관관계($r=-.18, p<.01$)가 있다고 보고한 바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Hornick et al.(1986)의 연구에서도 자기 표현을 잘 할수록, 성적 책임감이 높을수록 피임사용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자율성이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국내에서는 아직 성적자율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며 성적자율성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피임행위를 위해 성적자율성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지속적 피임행위군의 피임통제감 정도가 31.0±3.8점으로 비지속적 피임행위 군의 26.4±5.8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7.5, p=.00$). 많은 연구에서 지각된 행위통제와 행위수행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Ji, 1993; Nam, 1994), TPB이론을 피임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 Kim & Paek (1998)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통제감이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beta=0.33, p=0.001$). 따라서 지속적인 피임행위를 위해서는 간호 시 실제의 피임행위를 자신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피임통제감을 높여주는 간호중재가 요구된다.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지속적 피임행위 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 군간에 성관련 의사소통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적 의사소통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행위는 상호적이므로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은 예방행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성교 전에 피임에 대해 얘기를 한 청소년 커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임을 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고(Jorgensen, King & Torrey, 1980), 흑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파트너와 성관련 의사소통을 더 자주 그리고 편안하게 하는 여성들이 콘돔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St. Lawrence et al. 1998). 이처럼 의사소통은 지속적인 피임이나 콘돔사용 정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졌으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히 성관련 의사소통이 일반적인 의사소통보다 지속적인 피임행위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행위시의 피임사용은 파트너와 둘 사이의 관계적 맥락에서 생김어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은 상대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교육 등에서 현재 주로 초점을 두고 교육되어지고 있는 성지식과 태도 외에도 의사소통 특히 성관련 의사소통 기술이 중요시 다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종합해볼 때 피임통제감 및 성적자율성 뿐만 아니라 부부

또는 성 파트너간의 의사소통, 특히 성관련 의사소통이 지속적인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성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의 지속적 피임행위에 의사소통, 피임 통제감, 성적자율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여성건강 증진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2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편의추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00년 9월 14일부터 2000년 10월 20까지였으며 영구피임을 하였거나 자궁내 장치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제외되었다. 자료분석은 Win SPSS 프로그램(ver.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의 피임 통제감은 평균 4.04점, 성적 자율성은 평균 4.01점, 일반적 의사소통은 3.64점이었다. 지속적 피임행위 군과 비지속적 피임행위 군 사이에 성관련 의사소통($t=-2.41$, $p=0.017$), 성적자율성($t=-2.98$, $p=0.003$), 피임 통제감($t=-7.890$, $p=0.000$)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적 의사소통($t=-.858$, $p=.392$)은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기혼여성들의 지속적인 피임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성적자율성, 피임 통제감, 성관련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적 간호중재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제언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는데 추후연구에서는 파트너를 포함하여 파트너와의 관계가 파악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부부간 의사소통 특히 성관련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성관련 의사소통, 피임 통제감, 성적자율성 요인들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Bandura, A. A., & Adams, N. E. (1977). Analysis of self Efficacy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Chae, G. M., Choi, G. R., Song, C. A., & Hong, S. J. (1998). *The Speaking and Listening in company with a husband and a wife*. Korea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Chang, S. C. (1998). *A Study the Formation of the Sexual Subjectification Among Korean Women in Their Twenties : Focusing on Contraceptive Decision Making*.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 O. S., & Lee, M. L. (1997). Experience of the Married Women on Contraception. *Korean J. of Women Health Nursing*, 3(1), 77-91.
- Cho, O. S. (1998). *Lived experiences of the childbearing couples on contraception*. Unpublished Dotoral Dissertation, J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Cho, N. H., Kim, S. K., Cho, A. J., Chang, Y. S., & Oh, Y. H. (1997). *1997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Report*.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 Cho, Y. C. (1996). *A Study on the Formation of Woman's Sexual Identity - Consciousness Formation through Sexual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Hanna, K. (1999). An adolescent and young adult condom self-efficacy scale. *J Ped Nurs*, 14(1), 59-66.
- Hong, B. S. (1994). *A Study on the efficiency and pattern of communication between partners and degree of marriag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Hornick, J. P., Devlin, M. C., Downey M. K., & Baynham, T. (1986). Successful and Unsuccessful Contraceptors: A Multivariate Typology. *Social work practice in sexual problems*, 17-31.
- Hutchinson, M. K. (1998). Something to talk about: sexual risk communication between young women and their partners. *JOGNN*, 27(2), 127-133.
- Ji, Y. O. (1993). *Tes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among military smo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orgensen, S., King, S., & Torrey, B. (1980). Dyadic and social network influences on adolescent exposure to pregnancy risk. *J Marriage Fam*, 42, 141-155.
- Kim, M. H. (1997). *The effect of the contraceptive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on contraceptive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H., & Paek, K. S. (1998). Tes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ontraceptive behavior among Married Women. *J Korean Acad Nurs*, 28(3), 550-562.
- Kim, M. J. (2001).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xplaining contraception behaviors of married Korean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S. (1999). *A Study on Concept development of Women's Sexual Health with application of Hybrid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K. (1992). A Study of Contraceptive failure pregnancy and Induced abortion in Korea, *KIHASA*, 12(1), 119-144.
- Kim, S. K. (2001). Types of pregnant termination & counter policie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3, 5-15.
- Kim, S. K., Cho, A. J., Lee, S. S., Kim, Y. K., & Song, Y. J. (2000). *2000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Report*. KIHASA.
- Kim, Y. K. (2001). Level of Contraceptive Practice Rates for Current-Married Women & Policy Direc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3, 16-24.
- Kim, Y. S., Yum, Y. T., Song, D. B., & Kim, S. D. (1987). A study on the status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family planning in a rural area(Yeouju). *Korean J of Rural Med*, 12(1), 54-62.
- Kong, S. K., Kim, P. K. & Son, S. H. (1992). *The study on family types and delivery patterns in Korea*. KIHASA.
- Levinson. R. A. (1986). Contraceptive Self-efficacy: A perspective on Teenage girl's contraceptive behavior. *The J of Sex Res*, 22(3), 347-369.
- Nam, E. S. (1994). *The effect of an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n breastfeed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A. (1997). *An ethnographic study on experience of the natural family planning meth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H., Lee, B. K., & Han, J. H. (2001). Factors Affecting Condom Use of Married Women(Aged 20-39 years) in Korea. *J of Korean Public Health Assoc.*, 27(1), 53-58.
- St. Lawrence, J., Eldridge, G., Reitman, D., Little, C., Shelby, M., & Brasfield, T. (1998). Factors influencing condom use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implications for risk reduction interventions. *Am J Community Psychol*, 26(1), 7-28.
- Swanson, J. M. (1988). The process of finding contraceptive option. *WJNR*, 10(4), 492-503.
- United Nations Dept. of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1977). *Husband-wife communication and practice of family planning*. Asian population series No. 16. Bangkok, Thailand.
- Yoo, T. H., Lee, H. K., Kim, B. R., Choi, H., Cho, Y. K., & Seo, J. S. (1999). A Clinical Study on Artificial Abortion in Seoul Northern Area. *Inje Med J*, 20(1), 135-147.8

A Comparative Study of Consistent and Inconsistent Contraceptive Users on Partner Communication, Perceived Contraceptive Control, and Sexual Autonomy

Kim, Mi-Jong¹⁾ · Kang, Hee-Sun²⁾

1)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2)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in the consistent use of contraception methods by comparing consistent and inconsistent users on partner communication, contraceptive control perception, and sexual autonomy among married Korean women. **Method:** This study consists of 243 married women living in Korea. A convenient sampling technique was used and data were collected by self report questionnaires from September 14, 2000 to October 20, 2000. **Result:** Only 41.6% of women were using contraception methods consistently and the rest of them were using contraception methods inconsistently. Between the two groups,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noted in sexual communication($t=-2.5$, $p=.01$), perceived contraceptive control($t=-7.5$, $p=.00$) and sexual autonomy($t=-3.1$, $p=.00$). As for general communication,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t=-1.0$, $p=.31$). **Conclusion:** Family planning program advisors should recognize that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promotion of consistent contraceptive behavior should focus on the sexual communication, perceived contraceptive control, and sexual autonomy.

Key words : Communication, Perceived Contraceptive control, Sexual autonomy, Contracep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Mi-Jong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26, Nae-dong, Nonsan, Chungnam 320-711, Korea

Tel: +82-41-730-5439 Fax: +82-41-733-5326 E-mail: mjkim@konyang.ac.kr